

# 한국학호남진흥원 개원 8년 '수집 자료 10만점' 돌파

기대승-퇴계이황 친필 편지 등 10만1600여점

전국 국학진흥기관 중 두 번째…보물 등재 추진

1434년 김수연(1419~1455) 장군에 발급된 무과 합격증서 '김수연 왕지'는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문서다. 조선시대에는 국왕이 고신의 평계와 관직을 직접 하시했는데 이때 왕지(王旨)가 발급됐다. 조선 초기에는 왕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세종 17년(1435) 이후부터 교지(敎旨)로 바뀌었다. '김수연 왕지'는 교지로 바뀌기 전 발급된 왕지이기에 가치가 높다. '양선생문답첩'은 고봉 기대승(1527~1572)과 퇴계 이황(1501~1570)의 왕복 편지 및 한시를 수록한 것으로, 고봉의 친필을 확인할 수 있는 희귀본이다. 신분과 나이를 초월해 두 인물이나 눈 철학적 사유와 우정을 엿볼 수 있다. 이 귀중한 자료들은 나주 김해김씨 시종공파, 광주 남구 월산동 기대승 종가가 각각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호남을 거점으로 한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연구와 콘텐츠 생산을 활성화 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학호남진흥원이 개원 8년 만에 자료 10만점수를 수집했다. 국내 국학진흥기관 중 유일하게 독립형사와 전문 수장과 시설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가 크다.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흥영기)은 4일 한국학 자료 수집 10만점 달성을 알리는 간담회를 갖고 개원 8년 만에 전국 국학진흥기관 가운데 두번째 규모의 소장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누적 수집 자료는 올해 멸실·훼손 위기에 놓인 한국학 자료 1만4455점을 추가 확보해 10만 1696점(11월30일 기준)이다.

전국 국학진흥기관 소장 규모를 보면 한국학호남진흥원 68만여점, 한국학호남진흥원 10만1600여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4만9000여점, 융곡국학진흥원 2만9000여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비교적 짧은 기간 한국학 원본 자료를 대규모로 확보해 호남지역 인문, 사회, 역사, 예술 등 여러 분야 연구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확보한 자료는 호남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양 포함됐다. 1434년 발급한 무과 합격증서인 '김수연 왕지',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의 왕복 편지 및 한시를 모은 '양선생문답첩', 1600년 경 수은 강향이 기록한 포로 일기 '간양록' 등이다. 불교 자료로는 1389년 무학대사가 간행한 불경사전인 '장승법수'와 1452년 간행돼 현재까지 같은 판본이 발견되지 않은 유일본인 '불경심판서음보설대다다니경'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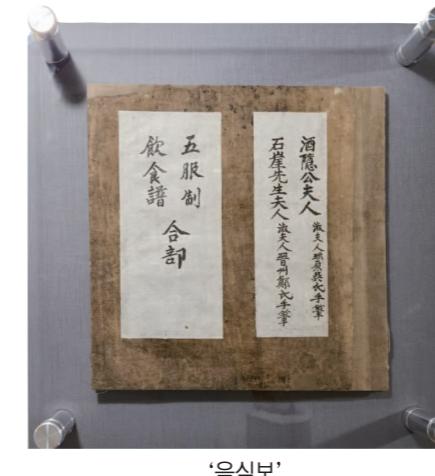
이와 함께 한국학호남진흥원이 보유한 문화유산은 현재까지 전남도유형문화유산 1676점, 광주시 유형문화유산 18점, 전남도문화유산자료 265점, 향토문화유산 132점 등 총 2091점이다. 진흥원은 이를 자료와 신규 자료에 국가유산 자료가 다수 포함돼 향후 학술집담회를 열어 객관적 자료 평가를 거친 뒤 순차적으로 보물로 등재할 계획이다.



채용신 작 '기우만 초상화'



강세황 작 '노매도'



'음식보'

를 수집, 연구, 활용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종주 기관"이라며 "이를 위해 민간기록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독립 정사와 전문 수집과 확보로 호남지역 한국학 연구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원장은 이어 "DB구축과 PDF 파일 등을 누리집에 탑재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AI를 활용해 시도민이 쉽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활용을 모색 중이다"면서 "보성 죽곡정사에 소장된 강세황의 '노매도'와 석자 채용신이 한말 호남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기우만을 그린 '기우만 초상화'처럼 고문현뿐만 아니라 예향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시서화 등 수집, 아파트 문화로 인해 멸실 위기에 놓인 근현대 사진 자료 수집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영기 원장은 "진흥원은 호남지역 한국학 자료



## 삶의 고통과 연소…눈물로 이뤄낸 정화

고성만 두 번째 시조집 '마늘' 출간  
시인의 내면에 형성된 형상들 조망



고성만 시인의 두 번째 시조집 '마늘'이 다인숲 시선 7번재권으로 최근 나왔다.

이 작품집은 유년기의 향토적 추억에서 출발해 장년의 자아 성찰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의 내적 성장기를 그려낸 서사적 시집으로, 단순히 한 시인의 개인적 회고를 넘어, 독자에게 '내면을 향한 긴 여정'을 환기한다.

성장기의 순수한 동경, 현실의 굴욕과 좌절, 그리고 끝내 도달하는 정화와 성찰까지, 이 시집은 우리 모두가 거쳐온 삶의 길목을 놓남적으로 비추며, 시조가 품을 수 있는 내면적 깊이를 새롭게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그의 이번 시조집에는 '상설'과 '그리움'이 넓게 드리워져 있다. 어린 시절 '은사시 숲속에서 첫 입술을 주던 애인'이나 '소중한 구슬 땃지를 건네주던 친구'는 단순한 기억을 넘어, 시적 자아가 여성 성과 처음 맞닥뜨린 무의식적 원형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세계는 현실 속에서 쉽게 파편화되고, 끝내 회복되지 못하는 잊어버린 애 ден으로 남는다.

시 속에서 반복 등장하는 '누님', '누이', '새댁'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시인의 내면에 형성된 아나마(Anima, 내적 여성성)의 다양한 얼굴로 해석된다. 이 여성상들은 보호자이면서도 동시에 동

화다.

시인은 귀가 순례진다는 나이대를 살아내고 있어 충분한 시적 사유로 보니같은 시적 결기를 구축할 수 있었을 터다. 여기서 말하는 보니는 밤이나 도토리의 속껍질을 말한다. 관찰과 감성의 놀랄만한 밀도를 느낄 수 있다.

시인은 '다람쥐가 숨겨놓은/알밤에서 돋은 짹//비바람 눈보라/툭, 떨군/열매 하나//억지로 껌질 벗기면/칼날을 무는 마음'이라고 노래한다. 껌질과 칼날의 비유가 예사롭지 않은 깊이를 더한다.

이 시조집은 '월봉서원 앞 간나무'를 비롯해 '검은 꽃의 감정', '보니', '눈물주의보' 등 제4부로 구성됐으며, 일상 틈틈이 창작한 70여편의 시조가 실렸다.

염창권 시인은 표사를 통해 "시적 자아가 유년기부터 장년기까지 아나마를 통해 자기 내면을 탐색하고 재구성해가는 드리마다. 여성상은 단순한 회상의 대상이 아니라 자아 내부에서 형성되고 소리난다. 마늘은 결국 향토성과 생명력, 슬픔과 치유를 동시에 상장하는 메타포가 된다.

마늘이 시인에게 삶의 고통과 연소의 상징이었다면 '보니'는 낯선 단어이지만 외파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면이나 본질로서의 삶에 대한 시적 형상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경의 대상이고, 때로는 상실과 좌절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시인은 사랑과 성장이 언제나 아이러니와 역설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표제작 '마늘'은 이 여성의 정집에 있다. '불관 위에 올려진 이백여 뼈마디'라는 이미지 속에는 삶의 고통과 연소, 그리고 눈물로 이루어낸 정화가 담겨 있다. 마늘은 결국 향토성과 생명력, 슬픔과 치유를 동시에 상장하는 메타포가 된다.

마늘이 시인에게 삶의 고통과 연소의 상징이었다면 '보니'는 낯선 단어이지만 외파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면이나 본질로서의 삶에 대한 시적 형상

##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전통 기·예능 펼친다

'전통문화예술강좌 수료식'

내일 오후 2시 전통문화관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6일 오후 2시 전통문화관에서 광주시 무형유산 보유자와 수강생이 함께하는 '2025 전통문화예술강좌 수료식 및 결과 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상·하반기 총 26개 강좌에서 강좌별 15회차 중 70% 이상 출석한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무형유산 기·예능 보유자 및 전문강사에게 직접 배운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료식은 상·하반기 수강생 수료증 전달식이며 1부 기능분야(행화·민화·전통음식) 발표회, 2부 예능분야(판소리·판소리고기법·가야금병창) 발표회 등 순으로 진행된다.

2025년 전통문화예술강좌 수강생은 총 269명이다. 상반기 강좌에서는 수강생 140명 중 122명, 하반기 강좌에서는 수강생 129명 중 118명이 수료증을 받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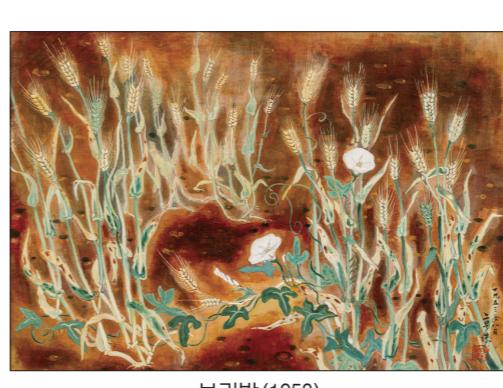
1부 기능분야 발표회에서는 광주시 남도의례음

식장 최영자 보유자 보금좌의 조야란 수강생, 이애섭 보유자 강좌의 김은수 수강생, 민경숙 보유자 강좌의 안건상 수강생이 전통음식 대표 작품을 소개한다.

또한 광주시 행화장 송광무 보유자가 진행한 행화 강좌의 김하정 수강생, 전문강사 이성임 화가가 진행한 민화 강좌의 황연숙 수강생이 대표 출품작을 공유한다. 행화·민화 작품 20여 점은 오는 11일까지 전통문화관 일석당에 전시된다.

또 두 번째 예능분야 발표회는 광주시 무형유산 예능보유자인 이순자 판소리 강좌의 수강생 공연을 시작으로 양신승 판소리고기법, 박미정 초급 판소리, 방성춘 판소리, 최연자 판소리, 김선아 판소리, 이영애 청소년 가야금 병창, 황승우 청소년 가야금 병창, 문명자 청소년 가야금 병창 순으로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무대에서 선보인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북화 전래의 패턴을 자키고 있으나, 오늘의 관점과 시각에서 수용할 수 있는 농촌의 정취를 함께 담고 있다. 안개가 흐르고 있는 심산유곡(深山幽谷)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념 속의 산수경(山水景)이 아닌, 친근한 우리 주변의 풍경이라는 이야기다.

석성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두 달간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지역 최고령 김영태 화백과 함께 한 국향대전 기념 2인전이 생애 마지막 전시가 됐다.

1940년대부터 미술활동을 본격화한 석성 김영수 화백은 1929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목포 문태종과 광주 서중을 거쳤으며, 1968년 광주아카데미 미술대학에서 첫 개인전을 연 뒤 꾸준하게 작품활동을 펼쳤고, 2009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제12회 개인전 '광주시립미술관 음악의 작가 석성 김영수 전'이 최근 가장 크게 진행된 개인전이었다.

빈소는 광주 천지장례식장 30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6일 오전 8시 30분이며 장지는 광산구 선영.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남도 전통회화 대가' 김형수 화백 별세

1940년대부터 70년 화업, 화단서 최고령 어른 중 한분  
대표작 '자화상'·'강강수월래' 등 다수 남겨…발인 6일

광주 화단에서 두살 위인 김영태 화백에 이어 두 번째 최고령 화가이자 남도 전통회화의 대가로 통했던 김형수 화백(광주)이 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석성 김형수 화백은 1943년 삼간 노수현(心仙 虚齋)의 문하에서 삼간의 명화한 골격을 이루고 있는 화법(畫法)을 바탕으로 해 독자적인 품격과 양식을 갖추기 시작. 한때 남농 허건(南農許健)과 동강 정운면(東窓 鄭雲勉)을 사사(師事)했다. 하지만 석성은 삼간을 사사한 뒤 기본적인 기량이 탄탄하게 발현돼 개성적인 품격을 선보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의재 허백이나 남농 허건 문하를

통해 화단에 나온 수목화기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자신만의 독보적 품격을 구축했다.

특히 대부분 수려한 심산유곡(深山幽谷)이나 강변, 산야의 풍경을 기본 소재로 해온 석성은 대자연의 풍광을 응장하면서 섬세하게 표현하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다 마을의 존재나 삶의 표정을 적절히 곁들여 다양한 현실적인 구도를 취하며, 담채로 계절적인 분위기와 정취를 부각시키는 산수화 형식은 힘 있고 명확한 골격을 이루는 특징적 표현성으로 성립됐다는 것이 증명이다.

또 이런 그의 기본적인 필력은 사실적인 소묘 훈련 바탕 위에서 성립된 것으로 인물 주제, 이를